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9월 18일(월)

윤석열 대통령, 유엔총회 계기

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(9.18)

-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 -
- 녹색 협력 · 해상 풍력 · 해운 등 협력 강화 -

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.18(월) 오후 「메테 프레데릭센(Mette Frederiksen)」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,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자유 · 인권 ·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덴마크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,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하고, 그간 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.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양국 관계가 ‘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되었음을 평가하고, 앞으로 해상풍력, 친환경선박,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프레데릭센 총리는 작년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올해 유엔 총회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가지는 등 한-덴마크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,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. 또한, 한국과 양자기술 협력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아울러,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-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하였고,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,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끝.